

사회문제의 측면에서 본 다문화가족문제의 실태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김현미*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다문화학과 박사(Ph.D. cand)*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Solution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Problems in Terms of Social Issues

Hyun-Mi Kim*

Department of Global Multiculture, Dongguk University (Ph.D. cand)*

요 약 본 연구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문제에 대해 그 실태분석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찾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족과 사회에 대한 정부와 국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인권 침해, 근로문제, 생활문제 등의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확대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 교육내용과 대상 및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한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특구와 같은 별도의 지구책정이 필요하다.

주제어 : 다문화,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Abstract This study is to find out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are becoming social problem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it is necessary to change government and public perception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and society.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xpanding and operating a counseling center for the support of multicultural families' human rights violations, labor issues, and life problems. Third, the efforts of related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s including the government to diversify contents, subjects and programs of multicultural education are needed. Fourth, there is a need for a separate district development such as multicultural special zones.

Key Words : Multiculture, Multicultural Family, Migrant workers, married immigrant

1. 서론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어느 사회에서나 다양성이 존재하며, 기존의 문화와 인종을 넘어서는 이질성이 존재한다. 이런 이질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그 사회가 소수집단들이 표출하는 다양성들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김범수, 2010: 66)[3].

오늘날 한국사회는 지구촌 시대에 급속한 변화에 대해 각 방면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즉, 신자유주

.....

Received 30 Oct 2017, Revised 21 Nov 2017

Accepted 11 Dec 2017

Corresponding Author: Hyun-Mi Kim
(Dongguk University)

Email: hyunmi0725@naver.com

ISSN: 2466-1139

.....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의 시장경제에 따른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세계화’(globalization)와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가 본 궤도에 진입함으로써 지구상의 단일 시장이 형성되어 재화와 용역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사회에 유례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재중 한인 또는 중국 동포, 이른바 조선족의 어려움은 민족문제로 취급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어왔고, 보편적 인권 개념이나 평등 개념에 입각하여 이들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들의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된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권 의식이 점차 향상되어 간다는 점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권재일 외, 2010: 88)[1].

그동안 한국사회는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왔고, 경제개발이 시작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출신지역에서 계속하여 살아왔다. 그러나 경제개발이 가속화되어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개방화와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단일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한국사회도 다문화사회로 변해가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늘어가고 있다. 한국인 또한 전 세계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인종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노동자나 결혼이민자로 유입되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최선화 외, 2014: 429)[11].

다문화사회가 전개됨에 따라 이주민과의 일상적인 접촉이 증대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역시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 불황과 고용 불안정성이 심화되면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관용적인 태도도 사라져 정서적 거부감이나 경계심, 인종적인 편견이 강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요인을 감안한다면 향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증가하여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장기적인 거주가 본격화되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 등에서 일상적인 차별과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어 이러한 우려는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지은구, 2016: 321)[9].

아직 한국사회는 다문화가족을 수용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기에는 경험이 부족하며 인식 면에서도 부족한 면이 많아 대다수 다문화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면에서 다문화문제를 사회문제의 한 부분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2. 다문화의 개념

2.1 다문화

‘다문화’는 하나 이상의 복수의 문화를 말한다(이종복 외, 2014: 18)[5]. 즉, 한 나라 안에 몇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문화라는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분야와 학파에 따라, 국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여러 문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문화의 의미는 언어와 문화, 관습, 종교, 인종, 계층, 직업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기존의 단일문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동일한 혈통과 문화를 추구하던 단일문화에 다른 문화들이 통합되어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김선녀, 2013: 6)[4].

다문화라는 용어는 1990년대 중후반에도 일부 지원단체에서 사용하기는 했지만 운동의 의제는 아니었다. 이런 ‘다문화’라는 용어가 정부 정책과 이주노동운동 진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경으로, 국제결혼이민여성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여성의 처우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게 된 것과 관련이 깊다. 정부와 지원 단체는 결혼이민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다문화’를 채택하였고 2006년에는 정부, 하계, 이주노동운동 진영을 망라하여 이 분야에 대해서 한국사회의 다양한 관심을 이끌어내게 되었다(김범수, 2010: 61)[3].

2.2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이란 용어는 2008년 여성가족부에 다문화가족과가 신설되면서 동시에 그 해 「다문화지원법」이 제정, 시행된 후 사용되고 있다. 「다문화지원법」이 제정된 이유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비용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다문화가족 개념은 다양하게 규정된다. 넓은 의미로는 국민 사이의 결혼으로 구성된 가족 이외에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한국국적 이외의 국적을 가지거나 또는 과거에 가졌던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가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한국인과 결혼한 또는 결혼한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가족을 가리킨다. 국가 정책은 좁은 의미의 다문화가족 개념을 준용하고 있으며, 넓은 의미의 개념 중 가족구성원 가운데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외국 국적자만으로 구성된 가족은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즉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핵심은 다문화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한국인 배우자와 그 외의 가족원이 대상이 된다(김근홍 외, 2013: 162)[2].

다문화가족이 국제결혼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정을 의미한다고 해서 법률적 용어는 아니다. 오히려 국제결혼이란 용어가 법률적으로 더 많이 쓰이지만, 단순히 결혼당사자만을 의미하고 국적이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결혼으로 인해 형성된 가족구성원을 모두 지칭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다문화가족이란 단어가 그 가족 내 구성원의 인종 간 차별성과 가정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난다는 특징을 지닌다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김범수, 2010: 84)[3]. 또한 다문화가족을 한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이민자, 새터민(탈북자), 그밖에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비차별적으로 부르는 용어로 정의되기도 한다(김범수, 2010: 63)[3].

따라서 다문화가족이란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된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최선화 외, 2014: 430)[11].

한편 ‘결혼이민자’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3의 대한민국 국민과 혼

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이거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다문화가족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Table 1> 다문화가족 유형

구분	유형별
이주노동자가족	-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결혼한 가족 -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가족
결혼이민자가족	-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 -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
새터민 가족	- 탈북하여 이주해온 가족

자료 : 최선화 외(2014: 431)[11].

국제결혼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문화 유형별로는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 63.6%로 가장 많고, ‘외국 남자와 한국 여자’의 결혼 24.1%, 귀화인 등이 포함된 기타의 결혼 12.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은 전년대비 12.1% 감소하였고, ‘외국 남자와 한국 여자’ 혼인은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결혼 중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 비중은 전년보다 1.8% 감소한 반면에, ‘외국 남자와 한국 여자’의 결혼 비중은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다문화 혼인 유형별 규모 및 비중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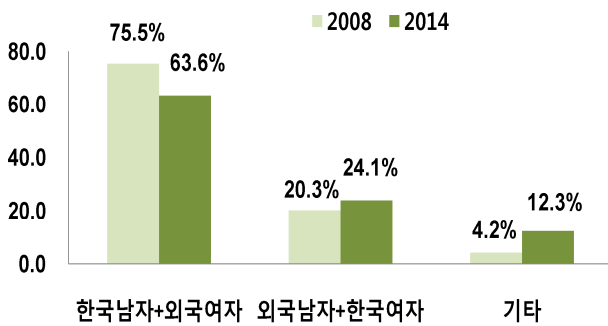
구분	2012		2013		2014		증감률
	건	비중	건	비중	건	비중	
다문화	29,224	100.0	26,948	100.0	24,387	100.0	-9.5
한국남자 + 외국여자	20,034	68.6	17,633	65.4	15,505	63.6	-12.1
외국남자 + 한국여자	6,394	21.9	6,290	23.3	5,871	24.1	-6.7
기타*	2,796	9.6	3,025	11.2	3,011	12.3	-0.5

자료 : 통계청(2015: 5), 「201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15].

2.3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사회

2.3.1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1970년대 초부터 제창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 활발한 논쟁을 벌여 정책으로서 결실을 맺었다. 조금 늦게 유럽



[Fig. 1] 다문화 혼인 유형별 비중(2008-2014)
 자료 : 통계청(2015: 1), 「201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15].

국가에도 다문화주의적인 견해가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다수와 소수 인종, 민족 간의 문화갈등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나, 장애인·소수자 집단의 문제까지 확대되어 사용되면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전숙자 외, 2009: 16)[7].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민족마다 다른 다양한 문화나 언어를 단일의 문화나 언어로 동화시키지 않고 공존시켜 서로 승인·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운동·정책을 말한다. 다문화주의는 강화된 보편주의로서 제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종래부터의 근대 보편주의를 서유럽 중심주의에 그친 것이라고 상대화한 위에 그것을 일부로서 포함한 다양한 여러 문화의 평등한 공존을 지향하는 점에 다문화주의의 특징이 있다. 종래의 보편주의가 사적인 다의성을 허용하면서 공적 영역에서는 단일의 공통문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에 대해 다문화주의는 공적 영역 내에 문화의 다양성·복수성이 내포되어야 한다고 보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단일의 공통문화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 극단적으로 이념화된 다문화주의는 그 논리적인 귀결로서 특정 민족의 분단이나 독립을 요구하게 된다. 즉 제문화의 공존과 통합을 지향하는 ‘강화된 보편주의’로서의 다문화주의가 오히려 제문화의 분리나 차별을 귀결한다는 역설로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다문화주의는 이상적인 차원에서 상이한 국적, 체류자격, 인종, 문화적 배경, 성, 연령, 계층적귀속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고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인 사회, 문화, 제도, 정서적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집합적 노력을 의미한다. 협의의 제도적 차원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와 지지가 선결된 조건에서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의 특수한 삶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뜻할 수도 있다. 다문화주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언어적 불평등을 시정하는 일종의 국민통합, 사회통합의 이데올로기로서 구체적인 일단의 정책을 유도해내는 지도원리라 할 수 있다. 즉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의 보장, 주류사회와 비주류사회의 상호 이해 촉진, 소수집단 간의 교류, 사회전반적인 평등수준의 향상과 구조적 차별의 극복 등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 사회, 개인 수준에서 광범위한 이해와 합의를 통해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실현된다(전숙자 외, 2009: 16)[7].

이렇듯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며, 그 철학적 기반·정의·정책 등에 대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문화주의는 좁은 의미에서 이주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라고 일컬어진다. 또한 다문화주의는 ‘이주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되기도 한다. 다문화주의의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현대사회가 평등한 문화적·정치적 지위를 가진 상이한 문화집단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다. 서구에서는 특히 교육과 관련하여 현대사회의 생활이 점차 복잡한 성향을 띠는 인식 아래 여성 문화, 비서구 문화 등을 정규 교육과정에 더 많이 포함시키려는 취지를 지칭하기도 한다. 다문화주의와 혼동되는 개념으로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가 있는데, 이는 여러 집단이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전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지 여러 집단이 공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집단의 문화가 지배적인 문화에서도 보유할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권재일 외, 2010: 90-91)[1].

한국 다문화사회의 주요 구성원은 결혼이주자정이다. 물론 도시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제한다면, 그들의 문화적 요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다문화주의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의 결혼이주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에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인권적·문화적·복지적 지원을 해주는 동화주의의 모형이 대안이 될 수 있다(장윤수·김영필, 2016: 52)[6].

2.3.2 다문화사회

다문화사회는 이러한 다문화주의의 정의를 포괄하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다문화사회는 사회 구조와 제도가 다문화주의를 반영하고 구체화하여야 하며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임을 인정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언어적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는 국민통합 또는 사회통합의 이데올로기로서 구체적인 일단의 정책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지도 원리여야만 할 것이다. 즉 다문화사회란 불평등의 시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의 정합성을 높이면서 다양성 증대에 따른 사회적 분절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민통합의 이데올로기를 가지는 사회로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국회입법조사처, 2009: 8-9)[14]. 그러므로 다문화사회는 다양한 문화를 의미하며 21세기의 새로운 문화 양상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 집단들이 하나의 국가 혹은 지역사회에 함께 거주함으로써 형성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또한 두 개 이상의 문화적 집단이 한 사회 안에 공존하여 문화적 특수성과 유사성을 동시에 경험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전지구화 현상의 세계적 추세 속에서 이민, 노동, 결혼, 유학, 방문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국가 간 인구이동은 일상화되고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한국사회도 점차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며 앞으로 다민족화와 다문화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전숙자 외, 2009: 158)[7].

3. 다문화가족문제의 내용

다문화가족이 새로운 사회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나 언어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정보의 부족과 가족의 폐쇄적인 태도로 인해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소외된 채 살아간다는 점이다. 이들이 경험하는 주변인의 느낌, 자신에 대한 부족한 느낌, 무엇인가 부적절하다는 느낌은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김범수 외, 2010: 232)[3].

3.1 국적 취득 및 인권문제

국적 취득 문제는 결혼이민자에 관련된 사항으로 보

인다.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최근까지 결혼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국적 취득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요소들, 즉 남편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조건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최근 들어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들이 시정되고 범적으로 향상된 조건이 부여되고 있으나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 여성의 경우, 국적 취득 과정은 기본적인 인권문제로서 정책적 배려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중매, 결혼 후 가정폭력 및 학대의 문제들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중대한 기본적인 인권침해로 지적될 수 있다(최명민 외, 2009: 31)[10].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가족은 1세대 인권이자 가장 보편적인 인권요소인 자유권적 침해상황도 심각하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김범수 외, 2010: 117)[3].

다문화사회에서 인권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한 그와 관련된 실천 활동의 중요성도 커진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은 인종이나 피부색 등에 있어서 한국사회의 수주자이며, 약자이고, 따라서 차별받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순혈주의, 다른 인종과 민족에 대한 배타의식이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결혼이민자 가족 등 한국사회의 소수자와 관련된 인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김범수, 2010: 102)[3].

3.2 사회문화적 적응 문제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에서 겪는 사회문화적 적응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 다음 기사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그리고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못하여 답답한 가슴만 치면서 가정생활을 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충북 옥천군에 사는 70대의 A씨는 최근 태어난 손자 머리맡에 날카로운 칼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같은 베트남에서 시집 온 며느리가 넣은 것으로 밝혀졌고, A씨는 불같이 화를 내며 며느리를 정신이상자로 몰아붙였다. 반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화를 내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고국 베트남에서는 나쁜 기운을 타지 않고 무탈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기원을 담아 아기 머리맡에 칼을 놓는 것이 풍습이기 때문이었다. 설

명을 하려 해도 말이 통하지 않으니 베트남 출신 며느리는 답답한 가슴만 칠 수밖에 없었다”(연합뉴스, 2006년 4월 25일자; 권계일 외, 2010: 308 재인용)[1].

첫째,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 ‘사회적 관계’라 함은 주로 결혼한 이민자가 주변의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민자는 이민자의 가족 및 친척 모임부터 학부모 모임, 지역 모임 등 다양한 모임에 참여한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모국인과의 모임이 정보교환과 상호부조의 주된 역할을 하는 것과 한국 배우자나 배우자 가족들이 모국인과의 그다지 반기지 않는 등의 이중적 특성이 있다(지은구, 2016: 317). 다시 말해서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인 한국의 가부장제적 가족중심주의, 지역주의, 연고주의, 지연·학연·혈연 등 폐쇄적 구조의 사회 연결망 속에서 사회에 적응은 물론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다(최명민 외, 2009: 32)[10].

둘째, 문화적 갈등 혹은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억압의 문제이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부장적 권위의 남편과 시댁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화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즉 남존여비사상, 유교적 문화, 시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몰이해, 한국 요리의 어려움, 관혼상제의 미숙, 종교와 가치관의 차이, 음주와 사생활의 상이 등으로 갈등이 많은 빚어질 수 있다(최선화 외, 2014: 438)[11]. 동남아, 특히 베트남을 비롯한 유교권 전통을 지닌 국가에서 온 이주여성의 경우, 부모 부양, 제사 의식, 남편 공경 등과 같은 유교 전통을 지속하는 데 적합한 배우자로 오도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 문화적 대응력 미비의 문제이다. 현재 국제결혼 가족이 다수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내부 대응력 혹은 조정력이 검증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족한 지역주민의식, 문화적 접촉과 충격에 대한 공식적·제도적 대응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래 지역사회 내의 다문화적 상황이 미지수로 남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사회에 통합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가정과 지역사회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지은구, 2016: 318)[9].

3.3 사회통합의 문제

첫째, 인종적·문화적 차별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외국

인과 외국 문화에 대한 시각은 이중적이거나 서열화 되어 있어 외국인의 피부색과 출신 국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제외동포에 대한 태도도 외국인에 대한 세계관과 비슷하게 위계적이고 이중적이다. 한편, 한국계 입양아에 대해서도 이들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태어난 혼혈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한국의 혈통주의에 입각하여 심각한 실정이다(최명민 외, 2009: 32)[10].

둘째, 문화적 몰이해와 언어소통의 문제이다. 사회구성원이 가진 외국 문화에 대해 제한되고 왜곡된 이해를 역사적 경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외국 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함께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지역, 피부색, 국가의 경제력을 막론하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제도적 지원을 찾기 힘들거나 매우 소극적이고 영세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아권 또는 구소련연방지역 출신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출신국 문화의 이해와 배려, 그리고 존중은 찾아보기 힘들다(최명민 외, 2009: 35)[10].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비난을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하철 1호선 양주역에서 미얀마 국적의 A(24)씨 등 2명을 수차례 폭행한 이모(50)씨를 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사건발생 4일 만인 전날 오전 11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과 A씨 일행이 촬영한 동영상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50분께 양주역 역사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 등 2명을 2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등산을 마치고 역안을 지나다 외국인들과 눈이 마주쳤는데, ‘뵈봐’라고 반말을 해 화가나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씨의 폭행영상은 유명 커뮤니티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는 등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뉴시스, 2016년 7월 15일자)[13].

또한 대부분의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어를 습득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출산하거나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져야 하는 등 일상생활의 적응 자체에 언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언어장애로 이어진다. 어머니가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가 발달성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또 자녀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아동학습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최선화 외, 2014: 438)[11].

셋째, 빈곤과 자녀교육의 문제이다.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겪는 언어, 문화적 갈등, 사회적 편견 등과 같은 어려움과 함께 빈곤문제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전숙자 외, 2009: 168)[7]. 한국 사회 내의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탈북민이 한국의 일반시민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매우 낮은 노동시장 지위, 경제적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 혼혈 학생들이 학교체제에서 또래들의 소외와 놀림을 당하거나 따돌림과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학교부적응, 학습부진, 중도 탈락률 증가, 낮은 취업률과 진학률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김범수 외, 2010: 36)[3]. 또한 최근 이주민의 많은 경우가 자녀양육과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결혼이민여성이 우리글과 우리말에 익숙지 않아 자녀조차 성장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주민 가정의 자녀에 대한 통계는 정확히 제시하기 어렵지만 이들은 많은 경우에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미취학률과 학습이해도의 부진 등이 나타나고 있다(최명민 외, 2009: 35-36)[10]. 또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부모의 국적·문화적 차이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자녀가 성장했을 때 한국사회 내에서 또 다른 차별을 받는 소외계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최선화 외, 2014: 438)[11].

4. 다문화가족문제의 실태분석

4.1 한국 다문화가족의 유형들

4.1.1 한국인과 미군 병사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 이후부터 미군은 한국에 주둔했고, 그 이후로는 한국인과 미군 사이에, 특히 한국 여성과 미군 남성과의 결혼으로, 그 중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한국 내 미군기지촌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이 형성되었다. 즉 대규모 국제결혼은 한국전쟁 후 미군과 한국인 여성들과의 결혼에서 찾을 수 있다(이중복 외, 2014: 44)[5]. 이들 다문화가족에서 태어난 혼혈인들을, 한국전쟁 전후의 혼혈인 세대를 1세대로, 190년대부터 1970년대 세대를 2세대로, 1980년대 이후를 3세대로 구분하기도 한다. 특히 이전의 다문화가족은 대부분 아시아

인종 간의 결합이었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외관상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미군과의 사이에서 형성된 다문화가족의 2세대들은 피부색과 겉모습의 차이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기피 및 차별의 대상이 되어왔다.

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1세대와 2세대는 인종적 차별과 불평등 또는 새로운 기회와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1982년 8월에 개정된 미국의 이민특례법에 의해 대부분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며, 2003년에는 인권위 조사 결과 400-500여 명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필리핀에서는 2003년 35,000명 정도가 혼혈인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 중에 약 5천 명의 미국계 혼혈인들 이외에도 3만여 명의 아시아계 혼혈인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범수 외, 2010: 87)[3].

4.1.2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국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국내에 유입되었고, 또 한국 근로자들의 해외 진출 등을 통하여 국제결혼이 늘어나게 되었다. 즉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이 형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초기에 주로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국제결혼이 성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의 결혼이 증가하였다. 특히 이주노동자 수의 증가는 이들과 한국인들 사이의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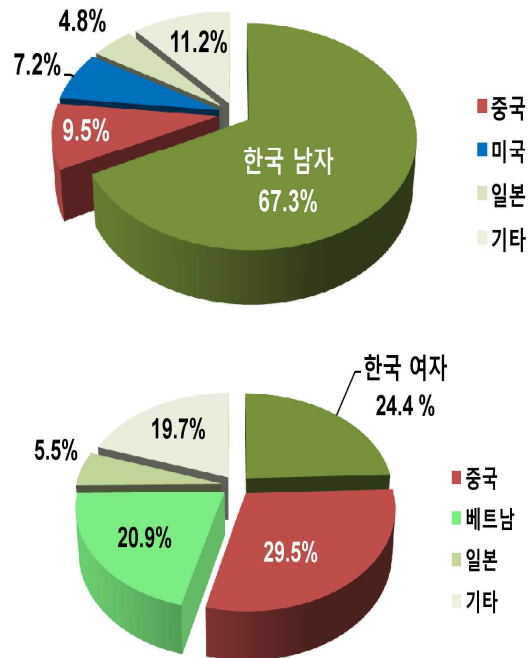
이주노동자들은 국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서로 동거하거나 결혼하여 2세를 갖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여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부모의 불법적 신분으로 인하여 역시 정확한 숫자의 파악이 힘들고 또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고국에 있는 자녀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관계당국에 신고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 말부터는 농촌을 중심으로 중국 연변과 소련 사할린 지역에서 온 결혼이민자들의 국제결혼이 증가하였다. 1996년 한국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방문을 엄격히 규제하면서 취업을 위한 국제결혼이 많아졌다. 1980년대 이전의 국제결혼은 주로 외국 남성과 한국 여성 사이에

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국내 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특히 농어촌을 중심으로 연변 동포를 비롯한 외국 여성과의 결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외국 여성들은 여성결혼이민자 지칭하며, 자연히 이런 다문화가족에서 출생한 2세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들을 코시안(Kosian=Korea+Asian)이라 부르기도 한다.

성별 출신 국적별 결혼을 살펴보면, 다문화 결혼을 한 외국 출신의 남자 국적은 중국이 9.5%로 가장 많고, 미국 7.2%, 일본 4.8%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중국과 미국 등의 비중은 증가하였고, 일본 등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 출신의 여자 국적은 중국이 29.5%로 가장 많고, 베트남 20.9%, 일본 5.5%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중국과 일본 등의 비중은 증가하였고, 베트남과 필리핀 등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Fig. 2] 성별 출신 국적별 비중(2014)
 자료 : 통계청(2015: 12), 「201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15].

<Table 2> 성별 출신 국적별 비중

(단위: 건, %)

남자	2012	2013	2014	여자	2012	2013	2014
건수	29,224	36,948	24,387	건수	29,224	36,948	24,387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한국	71.0	68.5	67.3	한국	22.2	23.5	24.4
외국	29.0	31.5	32.7	외국	77.8	76.5	75.6
중국	9.2	9.2	9.5	중국	29.9	29.0	29.5
미국	5.5	6.6	7.2	베트남	23.2	22.6	20.9
일본	5.4	5.1	4.8	일본	4.5	4.5	5.5
캐나다	1.7	1.8	2.0	필리핀	7.8	6.5	4.9
베트남	0.6	1.0	1.2	미국	2	2.6	2.9
호주	0.8	1.1	1.0	캄보디아	1.8	2.8	2.4
영국	0.7	0.7	0.8	태국	1.1	1.1	1.8
프랑스	0.5	0.6	0.7	우즈벡	1.3	1.0	1.1
독일	0.5	0.6	0.6	몽골	0.8	0.8	0.6
타이완	0.4	0.6	0.5	네팔	0.9	0.7	0.5
기타	3.6	4.2	4.3	기타	4.5	4.9	5.5

자료 : 통계청(2015: 12), 「201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15].

4.1.3 집단거주지역 형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그들이 모여 사는 집단거주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과거부터 서울에는 용산의 미군촌, 방배동의 프랑스인촌, 이촌동의 일본인촌 등이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전국의 공단지역과 서울 도심과 외곽에 이주노동자들의 집단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은 낮은 주거비용과 노동시장의 접근성 때문에 공단지역 인근이나 지하철 노선의 맨 끝인 서울 외곽지역에 집단거주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수도권 일대에는 이처럼 외국 노동자들이 집단 거주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유지해나가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집단거주 지역은 외국인 이주자들의 주류사회 편입을 더 늦출 수 있지만, 새로운 문화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긍정적 효과도 크다.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의미로 쓰이던 집단거주지역이 이제는 한국사회 내에서 이국적인 모습을 만들어 내어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하나로 묶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서로 이해하게끔 해주는 교량 역할도 하고 있다.

4.2 한국 다문화가족의 유형들

다문화인구동태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다문화 혼인,

이혼, 출생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다문화 혼인은 24,387건으로 전년보다 9.5% 감소했으며,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로 200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국 남자+외국 여자’가 전체 다문화 혼인의 63.6%, ‘외국 남자+한국 여자’가 2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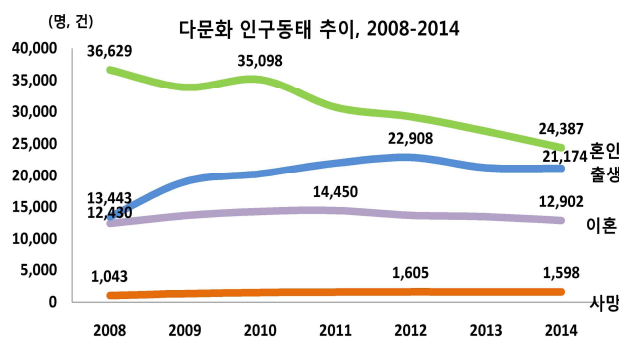
다문화 이혼은 12,902건으로 전년보다 4.3% 감소했으며,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2%로 전년 대비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생활기간 5년 미만의 이혼이 45.2%로 점차 감소 추세이다.

다문화 출생은 21,174명으로 전년보다 0.5% 감소했으며, 전체 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로 전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29.3세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Table 3> 다문화 인구동태 추이(2011-2014) (단위: 건, %)

	다문화				증감률	전체 인구동태 건수 중 다문화 비중			
	2011	2012	2013	2014		2011	2012	2013	2014
혼인	30,695	29,224	26,948	24,387	-9.5	9.3	8.9	8.3	8.0
이혼	14,450	13,701	13,482	12,902	-4.3	12.6	12.0	11.7	11.2
출생	22,014	22,908	21,290	21,174	-0.5	4.7	4.7	4.9	4.9
사망	1,557	1,605	1,558	1,598	2.6	0.6	0.6	0.6	0.6

자료 : 통계청(2015: 1), 「201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15].



[Fig. 3] 다문화 인구 동태 추이(2008-2014) 자료 : 통계청(2015: 1), 「201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15].

4.3 다문화 결혼 건수

다문화 결혼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전체 혼인은 30만 5천 건으로 전년보다 5.4% 감소한 데 비해 다문화 혼

인은 9.5% 감소하여 감소폭이 컸다. 2014년 의 경우 다문화 결혼은 24,387건으로 전년 26,948건보다 2,561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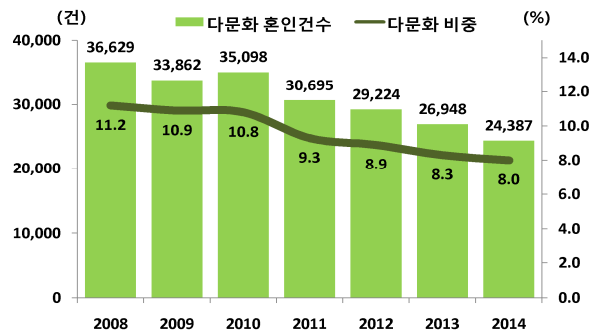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로 전년보다 0.3% 감소했으며, 200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Table 4> 다문화 혼인 건수 및 전체 혼인 중 다문화 비중

(단위: 건, %)

	다문화 혼인			한국인(출생기준) 간 혼인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혼인 건수	29,224	26,948	24,387	297,849	295,859	281,120	
(비중)	(8.9)	(8.3)	(8.0)	(91.1)	(91.7)	(92.0)	
전년 대비	증 감	-1,471	-2,276	-2,561	-543	-1,990	-14,739
	증감률	-4.8	-7.8	-9.5	-0.2	-0.7	-5.0

자료 : 통계청(2015: 4), 「201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15].



[Fig. 4] 다문화 혼인건수 및 다문화 비중 추이 2008-2014) 자료 : 통계청(2015: 4), 「201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15].

4.4 출생아 수 및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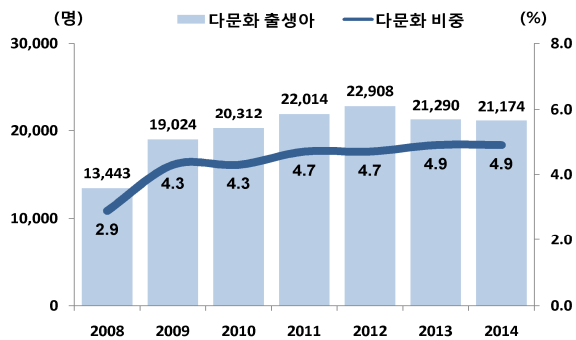
2014년 다문화 출생아는 21,174명으로 전년 21,290명보다 116명 0.5% 감소하였다. 2014년 전체 출생이 43만 5천 건으로 전년보다 0.2% 감소하였고, 다문화 부모의 출생아는 0.5% 감소하였다.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출생아 중 남자는 10,686명, 여자는 10,488명,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는 101.9명으로, 한국인(출생기준) 부모 출생성비(105.5)보다 낮았다.

<Table 5>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출생 성비
(단위: 명, %, 여아 100명당 남아 수)

	다문화 부모			한국인(출생기준) 부모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출생아 수	22,908	21,290	21,174	456,665	410,483	409,823	
(비중)	(4.7)	(4.9)	(4.9)	(94.2)	(94.0)	(94.1)	
전년대비	증 감	894	-1,618	-116	12,189	-46,182	-660
	증감률	4.1	-7.1	-0.5	2.7	-10.1	-0.2
남 아	11,745	10,838	10,686	234,521	210,630	210,399	
여 아	11,163	10,452	10,488	222,144	199,853	199,424	
출생성비	105.2	103.7	101.9	105.6	105.4	105.5	

자료 : 통계청(2015: 20), 「201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15].



[Fig. 5]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 중 다문화 비중 추이(2008-2014)

자료 : 통계청(2015: 20), 「201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15].

5. 다문화가족문제의 해결방안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이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이주민 또는 그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서 출발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비전	활기찬 다문화가족	
목표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정책과제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상대방 문화·제도 이해 제고 -문화교류 및 사회적지지
	다문화가족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 지원 - 한국어 능력 향상 - 학교생활 초기 적응 지원 - 기초학력향상 및 진학지도강화 - 동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 입국 생활 초기 적응 지원 - 소외계층 지원 강화 - 피해자 보호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 직업교육훈련 지원 -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 -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인종·문화 차별 법적·제도적 대응 - 사회문화 조성 -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 병영 환경 조성
	정책추진체계 정비	-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 - 다문화 가족정책 추진력 강화 -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Fig. 6]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계획(2013-2017)의 비전과 목표

자료 : 김근홍 외(2013: 172)[2].

다문화문제의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족과 사회에 대한 정부와 국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등한 입장에서 공존과 상생의 관점에서 다문화의 구성원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다문화주의의 모형을 인식하는 것이 다문화에 대한 국가정책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다문화의 구성원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정부는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사회복지 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인권 침해, 근로문제, 생활문제 등의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확대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 의료기관 지정 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 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중앙부처별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경우도 결혼이민여성들의 상황에 맞게 개선이 필요한데, 정확한 신상정보제공과 통역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교육내용과 대상 및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한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대안학교 지정 등을 통한 학력인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보다 나은 한국어 교재 개발 및 교수법 개발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한국의 상황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교육의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인들 자신들에게도 다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과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다문화특구와 같은 별도의 지구책정이 필요하다. 안산시의 경우, 원곡동을 다문화특구로 지정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처럼 다문화의 약사가 길고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절차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자들이 아직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그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다만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소수자들이 집단거주지를 형성하고 그들만의 문화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의 문화적 요구에 귀 기울일 때가 되었다.

6. 결론

고도화된 사회일수록 사회문제는 복잡하게 얽혀진다. 특히 한국사회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외국인의 이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여기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다문화가족문제는 사회문제로 연결됨은 당연한 귀결이다.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한국사회의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문제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다. 먼저 본 연구는 다문화의 개념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이란 한국인과 결혼한 또는 결혼한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가족을 가리킨다. 즉, 구체적으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한국인 배우자와 그 외의 가족원이 대상이 된다.

다문화가족문제는 국적 취득 및 인권문제, 사회문화적 적응 문제, 사회통합의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은 첫째,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있다. 둘째, 문화적 갈등 혹은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억압의 문제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문화적 대응력 미비의 문제이다.

한국사회는 대체로 한국전쟁 이후에 다문화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국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국내에 유입되었고, 또 한국 근로자들의 해외 진출 등을 통하여 국제결혼이 늘어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전국의 공단지역과 서울 도심과 외곽에 이주노동자들의 집단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즉 경기 안산지역이나 서울 대림동 일대를 중심으로 집단거주지역을 형성하여 그들 나름의 독특한 문화를 유지해나가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다문화 인구는 2014년의 경우, 혼인 24,387건, 이혼 12,902건, 출생아 21,17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문제의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족과 사회에 대한 정부와 국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다문화의 구성원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사회복지 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인권 침해, 근로문제, 생활문제 등의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확대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 의료기관 지정 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 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중앙부처별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다문화 교육내용과 대상 및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한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노력이 필

요하다. 또한 한국인들 자신들에게도 다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과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다문화특구와 같은 별도의 지구책정이 필요하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자들이 아직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그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김 현 미(Kim, Hyun Mi)



· 동국대학교 국제다문화학과 박사
(Ph.D. cand)
·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 관심분야: 사회복지, 다문화, 노인상담, 청소년상담
· E-Mail : hyunmi0725@naver.com

References

- [1] 권재일 외(2010). 『조합주의 복지국가』. 파주, 경기: 동녘.
- [2] 김근홍 외(2013). 『사회문제론』. 서울: 신정.
- [3] 김범수 외(2010). 『다문화사회복지론』. 파주, 경기: 양서원.
- [4] 김선녀(2013). 「한국 이주 몽골인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계 : 사회적지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이종복 외(2014).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복지』. 파주, 경기: 양서원.
- [6] 장윤수 · 김영필(2016). 『한국 다문화사회와 교육』. 파주, 경기: 양서원.
- [7] 전숙자 외(2009).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이해』. 서울: 그린.
- [8] 정태석 외(2014). 『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 [9] 지은구 외(2016). 『최신사회문제론』. 서울: 학지사.
- [10] 최명민 외(2009).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 서울: 학지사.
- [11] 최선화 외(201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파주, 경기: 양서원.
- [12] 현승일(2012). 『사회학』. 서울: 현승일.
- [13] 뉴시스, 2016년 7월 15일자.
- [14] 국회입법조사처(2009).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 [15] 통계청(2015). 「201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 [16] Williams, R.(2014).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